

9. 쇼세쓰엔(松雪園)

쇼세쓰엔(松雪園)은 오미야 분재 마을에서 분재 예술을 배우는 것의 훌륭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원주, 구로스 데루오(黒須輝夫) 씨는 인근 도주엔(藤樹園)에서 수행한 후 1977 년에 독립하여 이 분재원을 열었습니다. 현재 쇼세쓰엔에서는 분재 강습도 열고 있으며, 학생들은 1 년에 한 번 6 월에 축제의 일환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세쓰엔은 분재용 도자기 화분 제작 기술을 지도하는 방면으로도 활동을 넓혔습니다. 부지 내에 일본의 성처럼 당당히 서있는 건축물은 분재 교실과 도예 교실을 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구로스 씨는 분재가 긴 수명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어떻게 문화를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